

'맛소금부터 의료기기까지' 특허청, 케이(K)-브랜드 보호 민관 협력체계 강화

- 위조상품 피해빈발 업종 간담회 및 정·가품 전시회 개최(11.19) -
- 완구·캐릭터·의료기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...총 8개 업종과 협력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11. 19.(화) 14시 30분 서울드래곤시티(서울시 용산구)에서 'K-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(이하 협의회) 1주년 성과공유회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완구·캐릭터·의료기기협회와 케이(K)-브랜드 보호 업무협약도 신규 체결해, 기존 5개에서 8개로 협력 업종을 확대*했다.

* (기존) 식품, 화장품, 패션, 프랜차이즈, 음악콘텐츠 → (확대) 완구, 캐릭터, 의료기기협회

협의회는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많은 업종의 협·단체를 중심으로 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에 민·관이 함께 대응하고자 출범('23.11월)했다.

이날 성과공유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, 패션, 식품, 화장품, 완구 등 주요 업종의 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, ①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간담회, ②케이(K)-브랜드 정·가품 비교 전시회와 ③기업 발표회(세미나) 순으로 진행됐다.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완구·캐릭터·의료기기산업협회 간 위조상품 공동대응을 위한 신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.

①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피해빈발 주요 업종의 협회장들과 회의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.

②식품·화장품·패션 등 6개 업종, 250여 점의 케이(K)-브랜드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. 맛소금·라면 등의 대중적인 식품부터 고가의 의료기기 등 다양한 품목의 정·가품을 비교 전시해 위조상품 유통의 피해 심각성과 국민의 건강·안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.

③기업 발표회(세미나)에서는 식품·화장품 산업협회의 실제 위조상품 대응사례와 케이(K)-패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출범('24.6월)한 패션IP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"K-POP, 드라마 등 한류 인기로 인해 중국·동남아 지역 등에서 위조상품과 한국산으로 오인·혼동을 주는 제품들이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"이라며, "특허청은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※ 붙임: K-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1주년 성과공유회 포스터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준경 (042-481-5182)
		담당자	사무관	장성국 (042-481-5999)
			주무관	김효진 (042-481-8210)

민관이 함께하는 K-브랜드 보호 협의회 출범 1주년

성과공유회

— (세션1) 위 조 상 품 전 시

— (세션2) 성 과 공 유 세 미 나

— (세션3) 개 별 기 업 지 재 권 상 담

2024.11.19.(화) 14:30 - 16:00

드래곤시티용산 서울 3F 신라홀

구 분	일 시	내 용	발 표 자
(세션 1) 전시관람	14:30~	Real? or Fake? 정품 사기(Buy)의 시작 가품 사기(Fraud)의 끝	
(세션 2) 세미나	14:50~14:55	개 회	한국지식재산보호원
	14:55~15:00	개 회 사	김용산 원장 (한국지식재산보호원)
	15:00~16:00	협의회 1주년 성과 및 활동 결과	김나연 실장 (한국지식재산보호원)
		업종별 협의회 참여활동 공유 (패션/식품/화장품 분야 등)	- 박영수 상무 (한국패션산업협회) - 심현수 팀장 (한국식품산업협회) - 김경옥 실장 (대한화장품협회)
(세션 3) 기업상담	15:00~17:00	개별 상담 운영	

접 수 기 간 '24.11.4.~24.11.12.

참 가 대 상 K-브랜드 수출(예정) 국내기업 관계자

접 수 방 법 온라인 접수(QR을 통해 세미나 신청 및 상담 신청 가능)

세미나 신청 및 상담 신청

문의

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: 02-2183-5898 / kbrand@koipa.re.kr